

50장 고난의 원인인 죄와 종의 셋째 노래

1. 고난의 원인은 그들의 죄 (50:1-3)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팔아넘긴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마치 이혼 증서를 써서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50:1). 여호와께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다. 여호와는 강과 바다도 마르게 하실 수 있고 하늘을 온통 흑암으로 뒤덮을 수도 있는 분이시다.

2. 종의 셋째 노래 (50:4-9)

앞서 49:7-50:3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우쳐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구원을 이루시는 백성은 그러한 백성이다. 이제 4절부터는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여호와의 종의 셋째 노래가 이어진다.

- 4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자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의 귀를 일깨워 주셔서 제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 5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 6 나는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겼다.
수치와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 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따라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라서 내 얼굴을 차돌처럼 굳게 한다.
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 8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송사를 하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 보자.
누가 나의 고소자인가?
나에게 다가와 보아라.
- 9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려는가?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듣지 않는 백성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세 번째 ‘종의 노래’는 그 내용이 매우 어둡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에게 제자의 혀를 주셔서 가르치게 하시고, 아침마다 그 종의 귀를 여셔서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을 주셨다. 곤핍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깨치도록 하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들은 곤핍한 자를 도울 능력이 있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여호와의 종을 핍박하였

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와 종은 여호와께서 귀를 열어서 깨우쳐 주신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는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맞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맞겼으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여호와와 종은 이것이 여호와와 뜻임을 알았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는 여호와와 도우심을 힘입어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부싯돌처럼 얼굴을 굳건히 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자기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였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아무도 그를 정죄할 자가 없다(참조. 롬 8:33). 만일 정죄한다면 누구든 옷과 같이 닳아 버릴 것이고 좁에게 먹힐 것이다.

앞에서는 여호와와 종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구속하는 한 개인을 동시에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들의 구속자만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결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와 종은 수욕과 침 뱉음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이 셋째 노래에 나오는 여호와와 종은 조금 후에 52:13부터 나오는 넷째 노래에서 그 성격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

3. 장면의 전환 - 여호와와 빛과 자기의 빛 (50:10-11)

세 번째 여호와와 종의 노래를 마친 후의 기록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첫째는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둘째, 여호와와 빛을 의지하지 않고서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서 걷는 자들은 자기들의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곧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고 슬픔 가운데 눕게 될 것이다.

여호와와 종의 노래는 단순히 미래에 성취될 일들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서 지금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였다. 자기에게 빛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이 약속되지만, 여전히 자기의 빛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50장 익힘 문제

1.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여호와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엇 때문입니까? (1절)
2. 여호와와 종에 대한 묘사입니다. 빈 곳을 채우십시오. (4절)
“ 주 여호와께서 □□□ □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를 깨우치사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3. 여호와와 종이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5, 6절)
4. 여호와와 종이 수치를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무엇처럼 굳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7절)
5. 여호와와 도우심을 받는 종을 정죄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9절)